공단, 전국품질분임조 품질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CoP와 환경안전품질부문에서 각각 대통령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14개 부문에 299개의 분임조(약 3천여명)가 참여해 원가절감, 품질 · 생산성 향상방안, 고객만족 개선사항 등 기업의 경영성과를 올린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품질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다.

공단은 CoP부문에서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오창환 분임조장 외 8명이 '골든벨 하모니 학습으로 위험매설물 임대기준 개선'이라는 주제로 철도부지내 위험매설물도 일반매설물과 동일하게 관리된다는 점에 착안해 각종 관로 안전보호면적을 사용허가면적에 포함하고 위험매설물 매설정보를 담당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매설물의 폭발 위험성을 제거하여 철도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추가로 12억 6백만 원의 사용료를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안전품질 부문에서는 충청본부 건설 · 기술처 김순일 분임조장 외 7명이 '폐철도자갈 처리방법 개선으로 건설폐기물 감소'라는 주제로 기존에 폐기물로 처리된 철도자갈을 연약지반 치환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85억 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석산개발 억제를 이끈 점을 발표하여 좋은 평가를 받으며 친환경 철도건설 이미지를 제고시켰다.

강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지식혁신 DNA, 직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오늘의 뜻 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공단은 더욱 품질혁신에 매진하고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우수사례를 알리며 국민과 소통, 공유를 통해 또 다른 성과를 창출하는 등 국민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준비 안전하고 꼼꼼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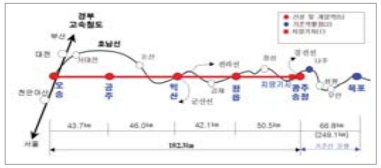
– 이달부터 KTX 시험운행 위한 사전점검 착수 –

개통종합관리단은 주요 시설물공사가 완료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182㎞)구간의 성공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공단 · 공사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인수운영전담반(공단 36명, 공사 22명) 및 종합시험운행팀(공단 34명, 공사 50명)을 구성했다.

인수운영전담반 및 종합시험운행팀은 이달 1일부터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 호남고속차량을 투입해 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협회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이용객의 편리성을 위한 꼼꼼한 사전 준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초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안전점검반을 구성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전반에 걸친 품질 및 안전 등에 대한 심층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강화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관리단 관계자는 "2015년 상반기에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새롭게 건설된 고속철도노선으로 KTX를 운행함에 따라 서울에서 광주송정까지 현재보다 66분이 빨라진 93분만에 도착하게 되어 충청 · 호남권의 지역균형 발전 및 반나절 생활권 실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철도역 건설에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 국민 공모로 품격 있는 역사 건설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철도역사의 설계 디자인, 제안사항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보다 품격있는 철도역사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전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원주~강릉 철도노선 중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강릉, 진부, 평창역의 역사 디자인 및 광장조형물과 역사 설계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공모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모 양식을 작성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이며 결과발표는 이달 30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당선작은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원주~강릉 올림픽역사(평창, 진부, 강릉)설계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공모전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역사 설계에 적용해 설계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역세권 개발 '합리적 기준' 마련

–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 눈높이에 맞게 –

KR연구원(원장 이동렬)은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역세권 유형별로 교통, 문화, 상업, 주거, 공원 등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 추진해옴에 따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 광명 역세권개발(○○공사) :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 울산 역세권개발(○○도시공사) : 상업용지 과다 공급 등

연구원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하여 역세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의 역세권 개발사례를 분석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역세권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입지평가 기준과 역세권 유형별로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 기준 마련, 행정 및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더불어 역과 주변지역의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 도출 등이다.

연구용역 시행결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역세권개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단은 금번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개발 등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향상 등의 효과와 철도로 인해 양분되어 있는 역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역 주변의 복합용도개발(MXD)을 추진함으로써 역 중심의 교통관문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거듭나는 역세권개발로 대국민 서비스를 더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합용도개발(MXD ; Mixed Used Development) : 역세권개발 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고밀도 개발하는 형태

구 분	주거	근린생활	영업 및 판매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	기타
역세권 반경 250m이내							
대도시기성시가지형	29.61%	25.50%	8.45%	9.50%	6.24%	1.90%	6.65%
대도시신개발형	30.03%	20.40%	9.49%	7.40%	3.60%	5.70%	8.82%
중소도시기성시가지형	28.00%	20.80%	13.78%	8.61%	4.81%	2.40%	7.21%
중소도시신개발형	25.13%	17.90%	7.80%	13.52%	5.74%	2.20%	12.39%
역세권 반경 250~500m							
대도시기성시가지형	40.95%	18.80%	3.64%	6.40%	2.73%	1.20%	7.21%
대도시신개발형	40.88%	14.70%	7.41%	5.40%	1.60%	0.80%	9.38%
중소도시기성시가지형	38.22%	19.40%	5.59%	4.34%	4.03%	1.50%	7.56%
중소도시신개발형	33.67%	14.90%	6.70%	5.72%	3.64%	4.70%	11.27%

'싱크홀' 예방 사전점검 시행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최근 서울시 지하철 건설로 인한 싱크홀(지반침하) 및 동공(洞空 · 텅빈 동굴) 발생과 관련해 공단이 시공 중인 전국의 터널공사현장 5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일제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현장은 공단이 발주한 터널공사 현장 161개소 중 구조물(도로, 건물, 교량 등) 하부로 직접 통과하거나 구조물과 인접한 터널공사 현장 55개소이다.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공단과 지반 및 터널분야 외부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현장 지하수위 계측자료를 점검하고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개소는 지표면 투과 레이더 탐사(GPR*), 보링(Boring)조사* 등 정밀검사를 추가로 시행했다.

* GPR(Ground Penetrating Radar)
* 보링(Boring)조사 : 직접 지반을 시추하여 조사하는 방식

본부 관계자는 "일제점검 시행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한 공사현장은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조치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철도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인 클린 10훈' 청렴을 생활화하다

– 부패방지 위한 행동요령 제정 –

기획재무본부는 투명하고 정의롭고 당당한 공직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임직원의 행동요령으로서 'KR인 클린 10훈(KR人 CLEAN 10訓)'을 지난달 19일 제정, 공표했다.

'KR인 클린 10훈'은 '청렴의 DNA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 청렴 DNA 2U'라는 구호 아래, 10가지 구체적인 청렴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이는 누구나 알기 쉽게 삽화형식으로 표현해 직장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청렴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실행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또한, '내 · 외부 고객과의 10대 약속'도 함께 실어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실천의지도 강조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생활 속에 청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 청렴을 생활화 하고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명절 전 공사현장 체불임금 모두 지급

–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철도건설현장 점검 시행 –

기획재무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 281개 철도건설현장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했다.

본부는 매년 추석 명절 전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에 대해 사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체불임금 및 장비 · 자재대금 미지급 금액 235억원을 원도급사에서 대위변제토록 조치해 현장 근로자 임금이 정상 지급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본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과 임금체불 해소가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운영과 하도급대금지급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명절을 맞아 철도 현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해소함으로써 임금 체불이 없는 따뜻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대금 1457억원 추석명절 전 지급

–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민족 최대의 추석명절을 맞아 건설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약 1457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관리처는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9일간 대금지급시스템의 헬프데스크, 전자조달, 예산, 회계, 건설사업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로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협력사의 대금지급업무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장애요인을 빠르게 조치해 추석 전에 신속히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5일간 전국 281개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 바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을 맞아 건설협력업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장비임대료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나 지급지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궤도공사' 낙찰자 선정

– 내년 12월까지 궤도공사 완료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궤도공사 낙찰자가 선정(1공구 : 대륙철도, 2공구 : 청명궤도)돼 8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착수하는 궤도공사는 전체 노선을 2개 공구로 나눠 진행하며 궤도1공구는 판교~곤지암구간(연장 28.661km), 궤도2공구는 곤지암 ~여주구간(연장 27.17km)이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조 83억원을 투입해 성남에서 여주까지(연장 55.831km) 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공사로 11개 철도역사가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62.2%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본부 관계자는 "성남~여주 복선전철 궤도공사가 완료되면 이어 후속공사인 전차선, 신호, 통신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동남부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철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해남부선 철도폐선부지 환경개선 진행

– 폐선구간 내 폐건축물 15곳 철거 –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중 해운대 일대에 있는 폐건축물 15개소에 대한 철거 작업을 7월에 착수해 이달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본부가 건설 중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 구간 중 2013년 12월 2일 해운대 좌동신도시 우회구간이 우선 개통되면서 해운대 청사포 송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열차운행이 중단됐다.

현재 (구)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중 해운대~청사포~송정 구간은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다.

본부 관계자는 "폐건축물 철거로 주위 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의 우범화 예방 뿐 아니라, 해운대 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절경을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철거 전

철거 후